국별 리포트

브라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3. 05.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사회동향 10

Ⅳ. 국제신인도 13

Ⅴ. 종합의견 1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Ⅰ. 일반개황

면 적	8,515천 ㎢	G D P	22,064억 달러 (2012년)
인 구	194.70백만 명 (2012년)	1 인 당 GDP	11,332 달러 (2012년)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Real(R)
대 외 정 책	친서방 실리주의	환 율(달러당)	1.95 (2012년)

□ 국토 면적, 인구, GDP 면에서 남미대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은 석유, 철광석 등 각종 광물자원과 커피, 대두, 원당 등 농산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며, 심해유전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조만간 세계 주요 석유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 브라질은 중국, 러시아, 인도와 함께 내수시장이 크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브릭스(BRICs)의 일원이자, 자동차, 철강 등의 제조업이 비교적 발달된 중남미 최대 공업국임.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음. 2010년 10월 대선에서 노동자당(PT)의 지우마 호세프 후보가 당선되어 2011년 1월 신정부가 출범하였음.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등 국제정치적 리더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변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2년 경제성장률 둔화

○ 2011년 브라질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 및 공공투자 프로젝트 집행 연기 및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 4.3%, 세계 경제성장률 2.8%보다 낮은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2년에도 금리 인하, 세금 감면, 대출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 등 수차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1.0%로 둔화되었음.

* 실질 경제성장률: 7.5%(2010년) → 2.7%(2011년) → 1%(2012년)

- 특히,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낮은 GDP 대비 국내총투자율(브라질: 19.4%, 중남미: 22.4%) 등이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2013년에는 민간소비 확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한 경기부양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3.5%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1인당 GDP: US$11,226.91(2010년) → US$12,867.46(2011년) → US$11,332.31(2012년)

□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 지속

○ 외자유입 증가와 대규모 기업대출로 인한 내수 활성화로 인해 물가불안 양상이 지속되어 201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억제목표(6.5%)를 소폭 상회한 6.64%를 기록하였음.

○ 2012년에는 글로벌 및 브라질 국내 경기 둔화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다소 완화되어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중 5.23%를 기록하였음.

○ 높은 임금 인상률, 식료품가격 인상 및 헤알화 강세 등으로 2012년 하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3년 1월, 2월에는 각각 6.2%, 6.3% 증가하여 중앙은행의 관리목표 상한선(4.5%±2%)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됨.

- 경기 둔화에도 소비자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자, 중앙은행은 2013년 3월 긴축통화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을 시사함.

□ 2012년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 2010년에는 대선을 실시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와 정부의 긴축정책 고수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2.7%로 감소했으며, 2011년에도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긴축정책 기조강화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의 -2.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2012년에는 저금리로 인한 이자비용 감소로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에 비해 다소 축소된 GDP의 -2.2%를 기록하였으나, 세금감면 등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향후 재정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e
경 제 성 장 률	5.2	-0.3	7.5	2.7	1.0
재 정 수 지 / G D P	-1.3	-3.0	-2.7	-2.6	-2.2
소비자물가상승률	5.7	4.9	5.0	6.6	5.2

자료: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낮은 국내 저축률과 투자 재원의 해외 의존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

○ 브라질은 높은 소비 성향과 과거 극심한 인플레이션 경험으로 인한 은행예금 기피 현상으로 저축률이 20% 내외 수준에 불과(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30% 상회)하며,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평균 대출금리가 연40%를 상회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는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높은 금융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업 기회가 사장되고 있고, 신생기업이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사업 여건임.

나. 성장잠재력

□ 브릭스(BRICs)국가로 성장잠재력 풍부

○ 브릭스 국가인 브라질은 풍부한 부존자원, 인구 1억 9천만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치·경제적 안정을 토대로 21세기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한해 3억의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농작물을 생산 및 수출하고 있음. 주요 농작물로 밀(세계3위), 콩(세계1위), 쌀(세계10위), 커피(세계1위), 설탕(세계3위), 면화(세계6위) 등이 있음.

- 석유, 철광석, 석탄, 주석, 망간, 니켈, 보크사이트 등 30종에 이르는 막대한 양의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석유의 완전 자급을 달성하였고 2007년부터 석유 수출국 대열에 진입하였음.

- 브라질은 대부분의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자동차, 전자, IT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다국적기업이 진출하여 현지에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브라질 국내기업도 석유, 철강, 항공기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해 수입 대체 산업화정책으로 약화되었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있음.

□ 높은 금융거래세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입 지속

○ 외자유입 급증으로 헤알화 강세가 지속되자, 브라질 정부는 201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단기외자에 대한 금융거래세(IOF)를 2%에서 6%로 인상함.

- 금융거래세는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부과되며,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1.5%를 부과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폐지되었다가 2009년 10월부터 2%를 재부과해 왔음. 브라질 정부는 2010년 10월 4일 동 세율을 4%로 인상하였고, 불과 2주 후인 10월18일에 6%로 2%p를 추가 인상함.

다. 정책성과

□ 경제개혁 정책 지속 추진

○ 브라질은 헤알 플랜이 도입된 1994년 이후 전력, 통신, 석유, 가스 등 기간산업 분야의 국가 독점 폐지, 국영기업 민영화, 무역자유화, 제도개혁(조세, 행정, 사회 보장 및 노동 분야) 등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한 각종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음.

○ 룰라 정부도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선결 과제인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해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 등 각종 개혁 정책과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1년 1월에 출범한 지우마 호세프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 경기부양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도로, 공항 및 고속철도 사업 등 인프라 부문에 대한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 ②에너지세율 인하, ③기계장비, 자동차부품 등 일부 전략적 제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 중임.

□ 2012년 중 경기부양책 수차례 발표

○ 2011년 브라질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2.8%)보다 낮은 2.7%를 기록하자, 브라질 정부는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중 수차례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함.

<표 2> 2012년 주요 경기부양책

일자	주요 내용	규모
4월	자동차 부품과 기계장비 등 15개 산업에 대한 감세 등	650억 헤알 (약 37조 415억 원)
5월	배기량 1천 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공산품세(IPI) 면제 및 금융거래세 인하(2.5% → 1.5%) 등	27억 헤알 (약 1조 5,400억 원)
7월	버스, 구급차, 건설 중장비 등에 대한 정부 구매 확대 등	84억 3,400만 헤알 (정부예산 배정)
8월	사회기반시설 현대화 등	1,330억 헤알 (약 75조원)
12월	민간 건설부문에 대해 기업의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등	28억 헤알 규모 (약 1조 4,315억 원)

□ 빈곤 감축과 소득 불평등 축소 등 가시적 성과 달성

○ 룰라 정권 취임 이후 고용 확대, 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책(Bolsa Familia) 등에 힘입어 실질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빈곤 축소와 소득 불평등 해소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2년 11월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브라질은 2009년 기준 총 인구의 1/3인 61백만 명이 중산층*으로 정의되어 중남미에서 중산층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2000년~2010년 간 평균지니계수도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5%p 감소함.

  * 중산층의 정의: 일일소득 US$10~US$50

○ 실업률은 2012년 말 5.5%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저소득층 비율은 2008년 말 26%에서 2011년 말 19%로 크게 감소하였음.

□ 헤알화 가치 하락세로 전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브라질 헤알화는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 및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2009~2011년 간 통화(헤알화) 가치 상승이 지속됨. 이에 브라질 정부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국외차입 달러화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IOF) 세율을 인상하고 중앙은행의 달러화 매입을 확대하는 한편, 기준금리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함.

○ 브라질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관리로 2012년 말 헤알화 환율은 달러 당 2.04 헤알을 기록함. 그러나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미 달러화 대비 1.95~2.0 헤알 범위 내에서 헤알화 가치의 소폭 상승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

□ 상품수지 흑자 규모 지속 축소

○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헤알화 가치하락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07년까지 4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수출 증가를 상회하는 수입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계속 축소되어 2011년에는 298억 달러를 기록함.

○ 2012년에는 헤알화 강세 및 중국, 아르헨티나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품 수출이 감소하면서 총수출증가율이 -3.8%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수입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34.7% 감소한 194억 달러로 축소됨.

* 총수출증가율: 27.2%(2010년) → 26.4%(2011년) → -3.8%(2012년)

□ 2012년 경상수지 적자 다소 악화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배당송금 증가로 소득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보임에 따라 2008년에 282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되었고, 2010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2.2%인 473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11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GDP 대비 -2.1%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2.8%로 확대되었음.

□ 2009년 이후 FDI 유입실적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가추세 지속

○ 브라질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인 경제성장촉진계획(PAC) 추진, 광물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2008년 FDI 유입액은 사상 최고치인 45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FDI 유입액이 260억 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0년에는 485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2011년에도 중남미 전체 FDI의 43%에 달하는 667억 달러가 유입되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함.

○ 2012년 FDI 유입액은 6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중남미 1위인 동시에 개도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의 12개월 분 이상 유지

○ 2012년 말 외환보유액은 3,621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12개월 분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e
경상수지	-28,192	-24,302	-47,323	-52,480	-63,341
경상수지/GDP	-1.7	-1.5	-2.2	-2.1	-2.8
상품수지	24,835	25,290	20,147	29,807	19,447
수출	197,942	152,995	201,915	256,040	242,580
수입	173,107	127,705	181,768	226,233	223,133
외환보유액	192,842	231,888	280,570	343,384	362,097
총외채잔액	262,959	281,651	352,440	404,317	428,758
총외채잔액/GDP	15.9	17.4	16.5	16.3	19.4
DSR	23.5	32.6	25.1	22.2	18.6

자료: IMF, EIU, IIF.

4. 외채상환능력

□ 총외채잔액 규모 다소 증가,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은 완화

○ 2012년 말 기준 총외채규모는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4,288억 달러 수준이며,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수출 감소로 146.1%로 증가하였으나,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저금리로 인한 이자상환액 감소 등으로 2012년 18.6%로 완화되었음.

○ 한편,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은 3년 연속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말 기준 세계 6위의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하면, 대외지급능력이 단기간에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Ⅲ. 정치·사회 동향

1. 정치안정

□ 2011년 1월 집권 여당의 지우마 호세프 정부 출범

○ 2010년 10월 31일 집권 여당의 정무장관이자 룰라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 후보가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2011년 1월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 취임 당시 호세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각료 중 다수를 유임시키는 등 룰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천명 하였으며, 경제안정을 위한 긴축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또한, 호세프 대통령은 빈곤과 기아퇴치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2014년까지 극빈곤층을 모두 없애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 룰라 정부의 대표적 빈민 구제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를 포괄하는 새로운 사회 보장 프로그램 마련을 발표하였음.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

○ 2013년 3월 브라질 여론조사 기관인 Ibope가 발표한 대통령 지지도 조사 결과,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까지 최고인 79%를 기록함.

-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12년 12월 72%, 2013년 3월 77% 등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식료품 세금 및 전기료 인하, 서민층 복지 확대정책 강력 추진 및 부패척결 등 호세프 정부의 친서민적인 정책 수행이 브라질의 2012년 저조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배경인 것으로 분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빈부 격차 및 치안 불안 지속

○ 브라질은 소득의 상위 10%가 국부의 42.9%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국민의 10.8%는 하루 소득이 2달러 이하인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등 빈부 격차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현재 브라질 정부는 월 소득 70헤알(약 4만원) 미만인 인구를 극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0년 말 전체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1천620만 명이 극빈곤층으로 파악되었음.

○ 이러한 사회 현실로 인해 브라질은 20대 80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 사례로 지목되고 있으며, 빈곤으로부터 파생되는 강력범죄, 마약, 환경 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에 시달리고 있음.

○ 극빈곤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브라질 정부는 2003년부터 시행 중인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생계비 마련을 위한 소득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규모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브라질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생계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극빈곤층 감소 및 중산층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수준

○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임. 독립 이후 수차례의 쿠데타가 있었으나 대부분 무혈 쿠데타였으며, 잦은 정변에도 불구하고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달리 내전과 같은 심각한 폭력 사태로 발전한 적은 없었으며, 군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임.

○ 절대 빈곤과 빈부 격차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은 낮으며, 반국가단체나 테러단체의 활동 위험도 거의 없는 상태임.

3. 국제관계

□ 역내 영향력확대,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

○ 브라질은 중남미의 정치, 경제 통합 및 역내 주도권 강화를 위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남미, 아프리카, 중국, 신흥경제국(IBSA, 남아공과 인도) 등과 연대하여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을 확대하고 있고, 과거 미국 및 EU중심의 통상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실리위주의 외교정책 노선 유지

○ 미국과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협상, 철강분쟁, 농업보조금 등의 이슈에서 잦은 마찰을 보이고 있고,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미국과 FTA 체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미국의 남미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음.

○ EU와는 Mercosur와 1999년부터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EU시장에 대한 농산물 개방, 자동차 시장 및 통신 시장 개방 등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

- 2013년 1월 개최된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EU 정상회의에서 EU정상들은 Mercosur와의 FTA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과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와의 통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아시아,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 추진

○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고위 인사 교류, 교역 및 투자 유치단 파견 등 브라질이 최근 경협확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기는 하나 교역에 있어서는 브라질이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브라질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공조입장을 취하고 있음.

○ 한편, 2013년 3월 브라질 중앙은행은 중국 인민은행과 600억 헤알(약 33조 1천억)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교역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조기상환 실시

○ 2005년 12월 IMF 차관 잔액 156억 달러와 2006~07년에 기일 도래하는 파리 클럽 채무 25.75억 달러를 전액 조기 상환하였음.

○ 2006년 2월에도 브래디본드 채무잔액 66.4억 달러 전액을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여 환매(buyback)한 바 있음.

○ 브라질 정부의 외채 조기상환 실시는 과거 선거가 있는 해에 반복되었던 금융 불안을 조기 예방하는 한편, 브라질의 투자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채무구조 개선과 더불어 브라질의 신용등급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였음.

□ 역사상 처음으로 순채권국으로 전환

○ 브라질 중앙은행은 2008년 2월, 브라질이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환보유액이 순외채 보다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브라질의 대외 지급능력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의 외환보유액 증가 및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고려하면, 브라질의 순채권국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2. 국제시장평가

□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투자적격등급 부여

○ S&P는 2011년 11월 브라질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 보유 및 호세프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브라질의 정부 채권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으며, Moody's 도 2011년 6월 브라질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2008년 5월 재정수지, 실업률 등 거시 경제 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투자 적격 등급인 BBB-등급을 부여했으며, 2011년 4월에는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수지 개선을 근거로 브라질 신용등급을 B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국가 신용도 평가 추이

○ OECD: 4등급(2006.6) → 3등급(2007.6) → 3등급(2011.6) → 3등급(2012.6)
○ S&P: BB+(2007.5) → BBB-(2008.4) → BBB(2011.11)
○ Moody's: Ba1(2007.8) → Baa3(2009.9) → Baa2(2011.6)
○ Fitch: BBB-(2008.5) → BBB(2011.4) → BBB(2011.10) → BBB(2012.7)

□ 주요 ECA 지원태도

○ 미국 EXIM: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단기인수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인수
○ 독일 Hermes: 단기 전액인수 가능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수출입은행	B2	(2013.04)	B2	(2012.05)
OECD	3등급	(2012.06)	3등급	(2011.06)
S&P	BBB	(2011.11)	BBB	(2011.05)
Moody's	Baa2	(2011.06)	Baa3	(2009.09)
Fitch	BBB	(2012.07)	BBB	(2011.10)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2004년 이후 대 브라질 수출 급증

○ 브라질은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국 순위 16위, 수입 대상국 순위 24위 국가로서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교역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임.

○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은 1990년 1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17억 달러, 2012년에는 103억 달러로 급신장하였음. 대 브라질 수입도 1990년 7억 달러에서 2000년에는 9억 달러, 2012년에는 61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 최근 수년간 대 브라질 수출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무역수지도 2006년에 3.6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고, 2010년 30억 달러, 2011년 55억 달러, 2012년 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2012년 대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LCD 및 칼라 TV부품, 핸드폰 부품 및 건설 중장비 등임. 특히 자동차는 2009년부터 대 브라질수출 1위 품목으로 부상하였으며, 2012년에는 대 브라질수출의 10.8%를 차지하였음. 한편, 대 브라질 주요 수입 품목은 철광석, 펄프, 천연섬유 및 농산물 등 주로 원자재임.

□ 2008년 이후 대 브라질 투자 증가세 지속

○ 우리나라 기업의 대 브라질 투자는 1980년대 말까지는 불과 2건(2백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들어 브라질의 경협 잠재력이 부상되고 경제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1998년 경제위기와 2002년 금융 불안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2004년까지 투자가 다소 둔화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부터 브라질 내수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직접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8~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 기업 영업환경 악화 등의 이유로 대 브라질 직접 투자 규모가 각각 1.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들어 브라질의 경기 회복과 더불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10년에는 SK네트워크의 브라질 철광석 기업 지분인수를 위한 대규모 투자(7억 달러)로 인해 대 브라질 직접 투자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10.5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신규법인수도 32개로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음.

○ 2012년 말 기준 대 브라질 직접투자 규모는 신규법인수 208개, 4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투자업종은 주로 광업과 제조업이며, 투자지역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나우스지역, 상업중심지인 사웅파울루와 리오데자네이루 등에 이루어지고 있음.

<표 4> 한·브라질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브라질	2010	2011	2012	주요품목
수 출	7,756	11,821	10,286	운송장비, 대두, 커피, 자동차
수 입	4,712	6,343	6,085	기계, 전자 및 운송기기, 원유, 화학제품
합 계	12,468	18,164	16,371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 브라질은 경기부양책 실시에 따른 내수 확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 등으로 2004년~2010년 중 평균 경제성장률 4.4%를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여 왔음. 그러나 세계경기 침체, 경기부양책 효과 미비, 낮은 GDP 대비 국내총투자율 등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이 2011년에 이어 중남미에서 가장 낮은 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또한, 총수출 위축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인프라 미비, 관료주의 등이 브라질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친서민정책 추진, 부패척결, 사상 최저 실업률 등으로 집권여당의 호세프 대통령이 79%의 높은 지지율 얻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브라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13년에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대비한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는 등 브라질의 국제 신인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으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정치, 경제적 안정으로 중남미 최대의 FDI 유입국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투자가 2008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임.

선임조사역 최민이 (☎02-3779-5711)
E-mail: lucia@koreaexim.go.kr